

◀기쁜 우리 날들▶ 전화해 주실래요?

미상



살다보면 그런 날 있습니다.
별일없냐는 안부 전화 한 통에
마음에 커다란 위로가 되는
그런 소박한 날 있습니다.

때 지나서 문득,
식사를 거르지 않았는지
챙겨주는 전화 한 통에
울렁거리는 고마움으로

새삼 눈물겨운 날 있습니다.

언제든
시간있으면 영화한편 보러가자는
돈금없는 전화 한 통이
몸서리쳐지게 기분좋은 날 있습니다.

그냥 걸었어.....라며,
뜸 들여 내뱉는 어설픈 말 한마디에
심장이 뛰어대는 실줄기 같은 흥분하나
살짜기 챙겨지는 떨리는 날 있습니다.

살다보면 그런 전화 한 통 받기가
오히려 무척이나 힘들 수 있는 요즘 세상.
이런 날은 뻑뻑하게 살던 나를
한 번쯤 쉬어가게 한답니다.
별것 아닌 일인데...

나,,이렇게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
그대에게 내마음 내밀어봅니다.

◀이런 교회▶
“무당교회”

경기도 양평군 무당리에는
“무당교회”가 아름답게 서
있습니다.
쑥스러운 어감인 줄 알면서
도 자기 마을이름으로 교회
이름을 삼은 “무당교회”의
의연함, 그 의연함처럼 든든
한 교회로 부흥하기를 바라는
마음입니다.



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	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십니다 갈보리교회 (07:8) Calvary Presbyterian Church	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성김과 봉사 *의명성 -명예
제8권 21호	기초성경공부이수. 정장으로 예배. 남 이야기 금지	2006년 5월 28일
☎ 369- 5077. Khyber Pass Rd.(The Church of Holy Sepulchre). www.calvary.org.nz		

◀하나님! 나의 하나님▶ 하나님의 선물 작자미상



어렸을 적 우리는 가난해서 수제비로 끼니를 때웠던 때가 있었다. 식구들은 가난했던 그 때의 기억에 우리가 자란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. 그러나 같은 생활은 한 나는 가난에 대한 아픔이나 상처가 없다.
늘 먹던 수제비도 맛이 있었고, 속에 밀가루 섞어서 찐 이름을 모르는 그것도 맛이 있었고 간혹은 개울가에서 송사리 잡고 고추잠자리 잡으러 다니고,
언덕 한 곳에서 하아모니카와 피리 불고,아이들이랑 군인 놀이 하면서 뛰어 다니고 호수에서 그림 그리고 산도 혼자 다니고 즐거웠다. 이렇게 내겐 가난에 대한 아픔이 없다.
지금 생각해보니 이것이 하나님 선물이었다.

새 옷 보다는 어머니 정성이 담긴 껌맨 옷을 좋아했다. 어머니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. 잘 사는 아이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있는 생애 만족했던 것,
지금 생각해보니 이것이 하나님 선물이었다.

아버지는 내 나이 10살 때 여자 아이여서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하셨다. 그 말씀에 상처가 되지 않았다. 이것은 내가 독립할 수 있는 기회였고, 내 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고 싶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활비며 학비 대며 사는 내 가난한 생애 가치를 두었다. 부잣집 아이들이 부럽기 보단 독립하는 내 자신에 자부심을 느꼈다. 스스로 번 빵이라 그런지 감사했고(굶을 수도 있었는데) 세상을 어두운 눈으로 보지 않고 낙천적일 수 있었던 것
지금 생각해보니 이것이 하나님 선물이었다.

내 나이 20에 좋아하는 남자 아이를 만났다. 사귀자는 내 말에 못생겨서 싫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. '그래라 그럼, 그래야 너 손해지 어디가서 나 같은 여잘 만나나' 하곤 그제 끝이었다. 왜 난 여자에게 치명적인 말에도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?
지금 생각해보니 이것이 하나님 선물이었다.

나이 먹어 하나님 앞에 서니 살면서 쌓은 것은 죄 뿐인 날 보았다. 살다면서 지은 죄가 많다 보니 비판할 사람이 없고.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기 바라는 소망이 생겼다. 난 나의 부족함을 자랑한다. 나의 부족함이 하늘 앞에 서게 했으므로. 지금 생각해보니 이것이 하나님 선물이었다.

하나님 선물에 대해 생각해보니 이런 나의 가난함에도 가난함을 느낄 수 없던 마음과 생각, 부족함과 살면서 지은 죄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었다.

주 일 예 배

(*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)

영광송 Gloria	Calvary	다 같이
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		
용서의 선언 Proclaim	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	인도자
*찬송 Hymn	23장	다 같이
*성서교독 Response Reading	17(시65편)	
*신앙고백 Apostle's Creed	사도신경	
교회소식 Welcome & Announcements		인도자
찬송 Hymn	457장	다 같이
기도 Pray		김영길 안수집사
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	마태복음 22:34-40	인도자
성가대 찬양 Choir	거룩 거룩하신 하나님	나무 십자가성가대
설교 Sermon	목숨 다하여 하나님 사랑	김성국 목사
찬송 Hymn	359장	다 같이
헌금기도 Offering Pray		인도자
응답송 Response Song	'이 믿음 더욱 굳세라'	다 같이
축도 Benediction		김성국 목사

◆5,6월 예배위원◆

일자	기도	헌금위원	안내
28	김영길	강은미	<본당> 김순자 정희자
4	박일영	강현정	
11	이광희	구미희	<현관> 김교섭 장현중
18	이규임	권용일	
25	이재영	권정호	

◆6월의 교회력◆

주 일	예배와 모임
4	성령강림주일 성찬주일
11	믿음의어머니기도회(13) 피택자교육(16)
25	이삭줍기주일

2006년 신앙생활: 하루에 7분기도하기

매일 가족위해 5분

매일 교회위해 1분

매일 남을위해 1분

『교회등록』

*3주간 예배,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.

*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. 그래야 바른 판단이 섭니다

주일예배: 아동, 학생: 12:30분 | 수요예배: 7:30 pm | 새벽기도회: 금 5:55 | 청년부: 토 오후 5시

"6월이 오면서 한 해의 가운데로 서졌습니다. 주님이 그간의 반 해를 잘 살았냐고 물으시길래 물든 잎사귀의 추락처럼 마음은 변하고 너무 많이 걸길로 갔다고 나는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"

1. 교우소식

*김창식 집사. 미주장로회신학대학 1학기 잘 마치고 일시 귀국. 남은 5학기도 지금까지처럼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.

2. 『월초특별새벽기도회』 <일시> 6월 1일 목요일 새벽5:55분.교회당

*6월의 첫 날이 시작되는 목요일입니다. 부모는 자녀와 일터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이 돼야 합니다. 또한 이번 달부터는 교회건축을 위해 호소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3. 『여성만의 천국』 <일시> 6월 2일 저녁 7:30분pm

*여선교회모임을 가정에서 가지는 날입니다. 중보기도, 선교회 사업, 친교를 위한 여선교회원들만의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

4. 『수요수도원』 <수요일 저녁 7:30분>

*금주 수요예배는 수요수도원(5째주 수요일)입니다. 함께 모여 여러 기도제목과 함께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. 교우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.

5. 교회건축헌금

*부담 없이 교회 다니기를 바라는 교우들의 마음만큼이나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만들기를 꿈꾸었습니다. 축은한 아이들과 학생, 청년들의 모습에 그 마음 그냥 허물어 뜨렸습니다.

◀착한 시인▶ 죽기 전에 꼭 해볼 일들
대인 셔우드

혼자 갑자기 여행을 떠난다.
누군가에게 살아 있을 이유를 준다.
악어 입을 두 손으로 벌려 본다.
2인용 자전거를 탄다.
인도 갠지스 강에서 목욕한다.
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.
누군가의 발을 씻어 준다.
달빛 비치는 들판에서 벌거벗고 누워 있다
소가 송아지를 낳는 장면을 구경한다.
지하철에서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보낸다.
특별한 이유 없이 한 사람에게 열 장의 엽서를 보낸다.
다른 사람이 이기게 해준다.
아무 날도 아닌데 아무 이유 없이 친구에게 꽃을 보낸다.
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른다.

뛰놀던 학교 운동장, 근무하던 부대, 빛 바랜 옛 사진, 나이 들어 찾은 고향언덕...이 모두 다시 돌아가고 싶게 하는 것들입니다.
결혼하는 두 사람 위해 축가를 부르는 등푸른 생선처럼 싱싱한 저들을 보면서 또 한번 돌아가고 싶었습니다.
저들이 어떻게 우리들 마음을 알겠습니까? 아직도 우리들 가슴에도 뛰는 설레임이 있는 줄을...
지나온 자국들마다 켜켜있는 추억들은 시도때도, 이유도 없이 설레게 합니다.